



제지산업의 현황과 전망 - 인쇄용지를 중심으로



제지산업은 제품의 특성상 소비재와 산업재에 두루 사용되므로 전반적인 내수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공급과잉에 따른 불황기를 거치면서 시장의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소수의 업체들이 과점 형태를 보이게 되었다. 과점은 시장의 가격 결정권을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이전시켰고, 원재료인 펄프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이익률 하락을 완만하게 조절할 수 있게 하였다. 제지산업의 전반적인 특성과 동향을 알아 보고, 제지산업 중 가장 비중이 가장 크고 소비생활과 밀접한 인쇄용지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제지산업의 개요

제지산업은 제지의 용도에 따라 인쇄용지산업, 신문용지산업, 골판지산업, 백판지산업, 위생용지산업 등으로 구분된다. 한편, 제지제품은 용도에 따라 문화용지, 산업용지, 생활용지로 크게 나누며, 문화용지는 신문용지, 인쇄용지로, 산업용지는 크라프트지, 백판지, 골판지로, 생활용지는 화장지, 기저귀, 생리대와 박엽지로 세분화된다. 이러한 분류의 특성으로 볼 때 제지산업은 가정의 소비수요와 산업용 운반수요 등에 영향을 받는 경기 민감 산업이다.

제지 제품의 원료에는 펄프와 고지가 사용된다. 펄프란 목재나 그 외의 식물성 섬유를 기계적 또는 화학적 처리에 의해서 뽑아낸 섬유소의 집합체를 말하며, 고지란 주로 오래된 신문지 등의 종이를 말한다. 펄프는 80% 이상을 해외에서 조달하며, 고지의 경우는 70% 정도를 국내에서 조달하고 그 외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인쇄용지, 백판지, 위생용지, 크라프트지는 펄프 투입량이 더 많고 신문용지, 골판지는 고지의 투입량이 더 많다. 펄프는 수입 원자재로서 해외 가격 변동과 환율의 변동 위험에

Industry Information 1

노출되어 있으며, 펄프 가격의 상향 변동에 따른 제품 가격에 이전 여부가 업체들의 수익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제지산업은 내수산업으로 내수소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원료 및 제품의 부피가 크고 수송비가 과다하여 세계적으로도 내수 지향적인 수요 구조를 보인다. 그러나, 백판지와 인쇄용지는 수출비중이 높은 편이다. 주원료인 화학펄프는 해외의존도가 80% 이상으로 국제 펄프가격의 변동에 따라 산업의 생산량 및 수익성이 움직인다. 장치산업으로 초기에 막대한 시설자금이 소요되어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며, 공급이 부족한 호황시에 시설투자가 이뤄지며 설비완료 시에는 공급이 초과되는 등 4~5년 주기로 수급이 불균형되는 모습을 보인다. 제품 생산과정에서 폐수, 종이 슬러지, 표백공정상 염류 잔류물 등 공해물질이 유발되어 관리가 필요하나, 반면 폐지 등의 원재료 재활용 비율이 매우 높아 환경오염산업이면서도 친환경 산업인 양면성을 보인다.

주요 용지별 산업의 개요

택배산업 등 국내 제조업과 동행하는 특성을 지닌 골판지산업은 과거 공급과잉이 지속되었으나 2008년부터는 아세아 계열(아세아제지, 아세아페이퍼텍), 태림포장 계열(동일제지, 월사), 신대양제

〈표 1〉 산업연관도

제지 용도	관련 산업	주요 기업
인쇄용지	출판/인쇄산업 (서적, 인쇄물)	한솔제지, 아트원제지, 한국제지, 무림페이퍼, 무림에스피 등
신문용지	신문산업	한국노스케스코그, 보유헌라제지,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 등
골판지	택배/가전/식품, 농산물포장산업 등	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한국수출포장공업, KGP 등
크라프트지	목물가공산업(지대), 시멘트산업, 기타 산업용 (중포대)	KGP, 아세아페이퍼텍 등
백판지	포장업(약품, 의류 등 상품포장용)	한솔제지, 대한펄프, 세림제지, 한창제지, 신통제지 등
위생용지	소비자	유한김벌리, P&G, 대한펄프, 모나리자
박엽지	차종류 포장지, 담배 껍질지, 사전 및 성서인쇄용지	국일제지, 부성특수제지, 삼일제지 등

지 계열(신대양제지, 대양제지), 삼보판지 계열(대림제지, 고려제지), 한국수출포장의 5대 계열이 공급 조절을 해오고 있다. 동 5대 계열은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골판지원지에서부터 판지 및 상자에 이르는 수직계열화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격결정권을 확보하여 안정적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문용지산업은 페이퍼코리아, 대한제지, 보유헌라제지, 전주페이퍼의 4개 기업이 공급자 위주의 시장 구조를 이끌어 가고 있다. 고지가격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수요산업은 신문산업으로 제지업 중 가장 안정적인 판매구조를 가지고 있다.

완구, 문구, 제과, 화장품산업 등 소비재 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백판지산업은 공급과잉 문제가 가장 심각한 편이나,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오히려 경쟁정도는 낮은 수준이다. 백판지시장은 한솔제지, 대한펄프, 세하, 신통제지의 5개사가 총생산량의 95%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화장지, 기저귀, 생리대 등을 생산하는 위생용지 산업은 타 지종과는 다르게 생산능력에 의해 시장점유율이 형성되지 않고, 브랜드의 마케팅 능력에 따라 유한김벌리, 대한펄프, 한국P&G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인쇄용지산업 분석

인쇄용지는 전체 지류 생산량의 약 29.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지류 중 그 비중이 가장 높다(2008년 기준). 인쇄용지는 고급서적이나 고급 인쇄물에 사용되는 고품질의 백상지, 일반 서

적이나 교과서, 잡지 등에 사용되는 증질지, 그리고 백상지를 양면 또는 한면에 코팅하여 주로 화보, 캘린더, 카탈로그 등에 사용되는 아트지로 분류된다. 이중 백상지와 아트지의 비중이 인쇄용지 생산량의 75% 정도를 차지하며, 주 원료인 펄프의 투입비중이 거의 100%에 달한다.

인쇄용지 총 출하에 따른 수출비중은 1990년 9.5%에서 2004년 45.6%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저가의 인쇄용지가 공급되면서 2005년 이후 수출비중이 하락세를 보이며 2008년 35%, 2009년 1~3월 36%로 일정 수준의 수출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다른 지종과는 다르게 환율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고 있다. 환율은 원재료 측면에서 펄프 수입 측면과 인쇄용지 제품에 대한 수출 측면으로 상반되게 영향을 미치므로 상하로 변동하는 것 보다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산업에 도움이 된다.

인쇄용지 시장은 연간 50만톤 이상으로 생산하는 한솔제지, 무림페이퍼, 한국제지, 아트원제지 등 4개의 대규모 기업과 흥원제지, 남한제지, 전주페이퍼 등의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다. 2008년 한솔제지가 이엔페이퍼(현 아트원제지) 인쇄용지 부문을 인수하면서 인쇄용지업체는 상위 4개 업체의 매출규모가 전체시장의 82%를 웃도는 과점적 시장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한 한솔제지는 2008년 11월 이엔페이퍼(현 아트원제지)의 지분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인쇄용지 전문기업은 아트원제지와 산업용지 전문업체인 KGP(Korea Green Paper)로 물적분할하였다. 이로써 한솔계열사가 국내 인쇄용지 업체 42%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며 물량공급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쇄용지산업은 원재료의 가격 변동과 재고 수준, 그리고 수요산업의 경기에 영향을 받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 원재료인 펄프 가격의 상승은 동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펄프가격은 펄프업체들의 생산량 변동에도 영향을 받지만, 펄프 수요 업체들의 재고 수준에 따라 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펄프업체들이 경기부진에 따라 생산량을 감산하는 와중에 제지업체들도 재고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회복이 예상된다면 펄프 가격은 급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 경우 재고 수준이 높게 유지되었다면 가격 상승은 완만하거나 낮은 수준에서 멈추게 될 것이다.

인쇄용지산업의 영향 요소와 그 전망

우리나라 인쇄용지 시장 내 기업들의 동향은 다음과 같다. 무림페이퍼는 2008년 인수한 국내 유일의 펄프회사인 동해펄프 공장 내에 2011년까지 약 4,000억원을 투자하여 9만㎡ 부지에 연간 45만톤 규모의 국내 최초 '펄프-지 일관화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펄프공장에서 수분 상태의 펄프를 제지공장으로 이송받아 종이를 생산하는 일관화 공장을 통해서 원가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인쇄용지 업체의 구조조정이 완성되면서 상위 4개사(한솔제지, 아트원제지, 한국제지, 무림페이퍼)의 매출비중이 전체시장의 80%를 웃도는 과점적 시장구조를 나타내며 공급자 중심시장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펄프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부담을 수급 조절을 통해 극복이 가능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1년 무림페이퍼의 일관공장 완성까지는 현재의 과점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당분간 무림페이퍼는 원가절감 효과를 가격 인하보다는 이익 확대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재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펄프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인쇄용지 업체들이 과점체제를 구축하여 가격 조절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펄프 가격의 상승폭을 온전히 제품가격에 이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

Industry Information 1

로 보인다. 그러나 본격적인 수요회복이 일어난다고 보기도 어려워 급등하지는 않고 완만한 상승 곡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인쇄용지 업체들의 이익율을 일부 감소시키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 요인으로 2010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경기 회복이 서서히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제지산업은 경기에 민감한 산업으로 경기 회복에 따라 인쇄용지 산업도 완만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6월 선거 특수에 따라 상당한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

시사점

제지산업은 2002년까지 호황을 누리다가 공급과잉이 되면서 2007년 중반까지 이익률이 하락하는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이 시기에는 공급과잉으로 인해 원재료인 펄프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제품가격은 오히려 하락하였다. 2007년 중반 중소제지사들의 공장 폐쇄, 금융위기에 따른 중소 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공급과잉이 축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품가격도 펄프가격에 연동하는 수준으로 복귀하였다.

제품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었던 다른 이유는 중소 업체들의 경영 악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수혜를 본 대형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인해 시장의 중심이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이동한 것을 들 수 있다. 상위 4개사의 시장점유율 합이 82% 이상을 차지하면서 원재료인 펄프가격의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무리없이 이전할 수 있게 되면서 영업이익율의 회복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과점적 시장 구조와 예상되는 경기 회복으로 볼 때 인쇄용지산업의 안정성은 더욱 견고해 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시장은 진입은 물론 퇴출에도 장벽이 있는 산업으로 신규 사업 진행이나 시설 확장 등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

